블랙홀 복음

(마26:1~13)

6.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블랙홀 복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블랙홀 복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읽으면 첫 번째 불뚝 솟아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지막 13절에 나오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입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여자의 행한 이 행동이 말해진 적을 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이 행위가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복음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할 때 말고, 또 교회에 헌신하라 그러고 충성하라 그럴 때에 예화로 들어진 것 말고, 근본

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의 사건이 전해질 때에,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여자가 행한 이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은 이 이야기가 함께 전파되는 것을 본적이 있냐 말입니다.
없지요? 그렇다면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이 여인의 행위의 의미라도 함께 전파가 되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블랙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블랙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별들이 진화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느 천체나 어느 별이 밀도가 높아집니다.
밀도가 높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지금 태양이다 그러면 태양에 이 직경이 한 69만km 정도 되나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못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69만km라고 하면, 예를 들어 그것을 한 5km 정도로 축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밀도가 엄청나게 조밀해지고 강해지겠지요.
밀도가 조밀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빨아들이는 힘에 중력이 생기게 됩니다, 중력이 생겨서 밀도가 높을수록 중력이 강해지는데 이 중력이 강해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여서, 심지어는 일초에 30만km를 가는 빛조차도, 그 속도조차도 블랙홀의 기운을 피해서 빠져 나올 수가 없이 빨려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블랙홀과 같다는 것이에요.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빨아들이는 것이냐?
복음이 블랙홀이라고 한다면, 블랙홀 복음이 빨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며 또 복음을 왜 블랙홀이라고 하느냐?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얘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은 1절과 5절 부분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예고되는데, 이 예고는 먼발치에 있는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눈앞에서 전개되는 시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뒤에 식사를 하시는 중에, 베다니에 사는 문둥병자였다가 나음을 입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에 한 여인이(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들어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붓는데 이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아주 분개합니다.

그 향유의 종류가 마가복음에 보면 순전한 나드라고 그러는데 이 나드의 값이 얼마나 비싸냐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300데나리온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년치가 넘어요.
근데 1년에 300일을 노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 하지요.
하여간 1년 치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얼마나 엄청난 값이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남자만 5천명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생각하면 아마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할 때에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라는 말이 빌립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추잡아 '200데나리온 정도면 겨우 먹일까말까 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게 200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돈인지 알 수 있지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이 집에 그런 것이 흔히 있을 수 있을 만큼 부자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향유를 옥합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옥합이라는 게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목이 길고 밑에가 둥그런 항아리처럼 생긴 건데,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작은 병입니다, 옥합이.
근데 그 병의 주둥이를 인봉을 해놨어요.
인봉을 해놨기 때문에 그 병 안에 들어있는 기름을 쓰려면 그 인봉된 주둥이를 깨뜨려 써버리고 나면 이 옥합은 다시는 못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비싼 고액의 향유를 옥합에 담고 다니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옥합을 한번 깨트리면 쓸 수 없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과 전체, 인생 전체를 걸만한 대상이 발견될 때에 쓴다 이겁니다.

이거 한번 쓰고 나서 또 마련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처지에 이 재정적인 처지에 한번 쓰면 끝인 겁니다.

자~ 이것을 부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가룟 유다의 선동을 받은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에게 너희가 부당하게 못살게 구느냐,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근데 그 좋은 일의 뭐냐 하면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한 일을 이야기하고 기억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대한 태도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태도를 보인 것과 똑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듣고 맞이할 때에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이 여자가 취한 입장과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봐요.
장례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보통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지라도, 그 유대 땅에서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상 치러지던 장례에서의 의미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해요, 주석가들이 장례를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의 장례관습상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것을 이 여자가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오해에요.
유대 관습에 따라서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일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리아와 세 여인이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새벽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장례, 유대 관습상에 장례절차에 따른 것은 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받아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장례절차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통적인 유대적 장례관습에서 있는 한 절차를 이 여자가 미리 수행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장례라는 게 뭡니까?

원어를 보면 매장이에요 매장 Burial.

Funeral이 장례를 위한 여러 가지 예식전체를 포함한다고 한다면, Burial은 매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장례라는 게 매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때 이 장례는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힐 것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고,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부활하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같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부활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바로 여인이 취한 태도처럼 취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매장에 대해서 취한 그 태도를 아무도 취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매장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완전히 일반장례 때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매장! 장례라는 게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권 안에서.

자! 그러면 매장과 화장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아무리 장례예식이 거창하고 대단하고 엄숙해도 결국은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죽은 시체를 일상적인 삶의 현장으로부터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 몸으로 살았던 고인의 삶을 종식시키는 것이고 끝내는 것이고, 그 끝내는 것의 마무리가 어떻게 period가 찍히느냐, 종지부가 찍히느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의 시신을 삶의 현장에서 치워버림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례는 예수님의 장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매장도 마찬가지고 삶의 현장으로부터 치워내는 것이고, 내 마음을 그 사람 그 몸으로부터 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삶의 현장에 남아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삶의 현장에 내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되니까, 죽으면 그 시신을 치워버리면서 그 사람과 그 사람 삶에서 내 마음을 떼 내는 게 바로 장례요 매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유대나 대한민국이나 조선이나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나 상관없이.

그 무덤을 삶의 현장 안에 공원처럼 꾸미던지 어떻든지 간에 일상적인 삶의 현장으로부터 치워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내 삶이 일어나는, 삶의 다이내믹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매장에 대해서 취한 태도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게 무슨 얘깁니까?
몸도 마음도 다 드리고 당신을 일평생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목에 걸고 다녔던 이 향유가 담긴 옥합은 여인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다~ 드릴 그러한 대상을 만나기 전까지 곱게곱게 인봉해둔 여인의 마음입니다.
여인의 인생이 걸린 거예요, 거기에 인생이 담겨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길 것이냐!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죽음이 예고되고 죽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도 가룟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사실을 기정화하고 바로 고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일 정도로 확실시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그 기름을 다 발라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장례는, 삶으로부터 삶을 살아야 되는 내 마음으로부터, 삶의 현장으로부터 그 고인의 시신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거꾸로 예수님이 매장되는 그 현장으로 삶을 위해 준비되어야 될, 예비 되어야 될, 삶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여인의 마음이 완전히 다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여인의 마음이 옥합 안에 들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례 때의 장례의미와 예수님의 장례는 근본적으로 바뀌어 지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겁니다, 의미가.
일반적인 장례는 우리 마음을 그 사람에게서 떼어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시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삶을 위해서 남아 있어야 될 모든 마음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리는 장례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 드린 마음을 빼고 나면 마음에 여분이라는 게 없는 상태인데, 내 마음을 다 가진 예수님께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내 마음도 같이 죽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장례였다 이거에요.
그 장례, 그러한 죽음의 의미에 가장 적합하게 이 여인이 대응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죽음의 직전에서 돌아섭니다, 블랙홀로부터 빠져 나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블랙홀이에요.
어떤 블랙홀입니까? 이 삶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마음에 한 조각까지도 나머지 한 조각 까지도 완전히 빨아들여 버리는 블랙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자! 십자가사건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삶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모든 마음을 다 거두어 들여서 주님의 죽음에 같이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삶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같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사업이 안 되서 죽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라면, 사업이라고 하는 옥합에 다 들어가 있는 마음을, 사업이라는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 죽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 죽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 쓸 모든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걸어서 사업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으로 마음이 빨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엄마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상담을 해 주셔야 되냐면, 자식이라는 옥합 안에 들어있는 마음을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다~ 드려서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삶의 현장에서 빠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장례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신을 버리는 것인데, 시신을 치워버리는 것인데 예수님의 장례는 어떻게 마땅히 준비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 삶을 위해 준비돼야 될 마음이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고, 너도 같이 이제는 진짜 삶을 살 생각하지 말고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빨려 들어갈 때, 삶을 위해서 유보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죽은 자처럼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부활되고,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내려와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로 지금 고민하십니까?
마음이 다 뺏겨져 있고, 마음이 다 들어가 있고, 마음이 다 부어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옥합이에요.
그걸 깨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삶의 현장을 떠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따라 들어가는 역사를 통해서만 복음은 날마다 날마다 수용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는 진정한 복음을 수용하는 자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 블랙홀입니다.
삶을 위해서 달려가려는 모~든 마음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빨아들여진 상태에서 이 마음은 주님 따라,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뿐이지, 세상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한다고 신앙의 열매를 경험할 수는 없는 거지요.

블랙홀 복음! 이 여인처럼 제대로 수용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사건이 삶을 향하여 달려가려는 내 마음에 대해 블랙홀인 것을 인정함으로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